

불미전 대상에 류종상의 '금동준제...'

10월 1일 시상식 및 개막식... 불교중앙박물관서 전시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대상에 류종상의 '금동준제관음보살좌상'이 선정됐다. 이번 불미전에는 8월 27~29일까지 총1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작품 심사를 완료했다. 수상작품은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4점, 입선 20점으로 총 46점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 2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이 추가 수여된다.



대상작 류종상 작가의 '금동준제보살좌상'

조계종은 "이번 불미전의 응모작은 작품과 함께 작품설명서에 제작 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사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또한 올해부터는 대상작의 상급은 유지하되 대상 수상 작품중단귀속 부분을 삭제하여 작가들의 폭 넓은 작품 활동과 공모전 출품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능엄경 변상도(목판화)로 상급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대상은 조각부문 류종상 작가의 '금동준제보살좌상'으로 상장과 함께 상급 1,500만원, 최우수상은 회화부문 정일오(일오 스님) 작가의 '법화사 대응전 석가모니후불탱'과 정찬민 작가의 '대불정수' 정혜숙 기자

"원효 스님 소크라테스보다 몇백배 위대한 사상가"

영화 '원효대사' 제작하는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



김선아 감독은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다큐영화 '원효 대사'를 제작한다. 이 영화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제가 생각하는 원효 스님은 소크라테스나 노자보다 몇 백배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원효 스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명상훈련을 하고 철학을 논하는 서양인들의 책인데, 한국 사상가의 책은 알려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이 원효 스님의 삶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은 원효 스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불교를 넘어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삶이 다큐영화로 다시 피어난다.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원효 대사'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케이팝과 한국드라마는 전세계인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세계에 내세울만한 한국인 사상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만난 원효 스님은 제 인생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철학을 좋아해 서양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 오던 그녀는 어느날 서양철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서양 철학이 우리의 삶에

원효 사상 만나 삶 전환점 맞아 다큐 영화 제작 결심 한국행

2013년 9월 개봉 목표로 촬영 텀블벅으로 제작비 모금중



프로젝트의 일러스트레이션 박재동 화백의 '원효 스님'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지만 그것이 삶의 의문을 해결해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몇 해전 만난 원효 스님의 사상은 달랐어요. 존재론적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었죠."

당시, 노장사상에 빠져 있었던 김 감독은 언젠가는 세속을 등지고 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다. 생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지인이 보내준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라는 책 한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스님의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애행 등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그리고 '진속불이(眞俗不二)'라는 한 단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진리와 세속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진리도 깨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척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현실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업인 영화였다. 그렇게 김 감독은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한다. "천재적 사상가이자 뛰어난 문장가이며, 계급과 시대를 뛰어넘어 민중을 계몽한 진정한 자유인이 바로 원효 스님이죠. 1350여년 전 원효 스님은 한반도를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을 넘어 인도에까지 이름을 떨쳤고, 그의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세계인들에게도 유용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화는 원효 스님의 업적과 이를 노래로 만드는 아티스트의 작업 과정과 공연, 여기에 현재 무애행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조망한다. 또한 박재동 화백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물론 상업적 목적의 영화가 아니기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후원을 받고자 한편 9월 15일까지 인터넷 후원사이트인 텀블벅(https://tumblrbug.com/ko/master_wonhyo)을 통해 영화제작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영화는 내년 5월 분황사에서 열리는 원효 스님 다례제를 끝으로 촬영을 마치고 내년 9월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비롯해 칸느, 트라이베카, 부산 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 영화제에 출품 예정이며 국내의 개봉과 TV와 온라인방영도 추진한다. 김 감독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제 3세계의 학교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을 방문해 영화 상영 및 토크 콘서트를 통해 원효 스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nul.com

오색단풍과 더불어 음악 향연 즐기자

청량사 산사음악회...10월 5일



산사음악회의 원조라 불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10월 5일 열린다.

'2013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7시 청량사 청량사 경내에서 열린다. '오색단풍으로 노래하리'라는 주제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할 이번 공연은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소울가수 BMK, 국민 여가수 정수라, 노래하는 스님 심진 스님, 불자 성악인 허철영 등이 출연한다.

장사익·BMK·심진 스님 등 출연 꼬마풍경·사물놀이도 무대에

여기에 봄·여름내 따스함도 연습해 온 청량사의 어린이 꼬마풍경, 어린이 사물놀이팀, 동근소리 합창단도 무대를 펼친다. 이번 음악회는 오색으로 물든 청량사 도량에서 각기 다른 색을 지닌 가수들이 나와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현 스님은 "대중들은 색의 조화로움 속에서 자신의 색과 어울리는 색깔에 저절로 끌리게 될 것이며 그런 색을 만나 마음은 진정 행복을 얻을 것"이라며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속에 보다 밝고 화사한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청량사는 경북지역 어린이, 청소년, 농민 포교에 힘써 지역의 대표적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포교의 중심축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지 지현 스님은 "이번 '2013 산사음악회' 역시 단순한 포교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01년 '천년의 속삭임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이란 주제로 시작되어 '원효 산사음악회'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올가을 알록달록 오색으로 물든 고즈넉한 청량사에서 자연에게 묻고 답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02)723-9836 정혜숙 기자

오백나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꿈'

'천영배 전' 9월 17일까지 보송갤러리서

동래야무 무형문화재 후계자 천영배 작가의 오백나한전이 부산여선원 2층 보송갤러리에서 9월 17일까지 대중을 찾아간다. 천 작가는 부산 동래야무 무형문화재 중곡 천재동 선생의 아들로 토우 및 탈 제작 기술을 전수 받았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천재동·천영배 토우 부자전', '천재동·천영배 창작탈 부자전', '천영배 테라코타전' 등을 개최해왔다. 다양

한 토우 전시를 열었지만 그에게 있어 오백나한 테라코타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작가와 오백나한의 인연은 기구하다. 불교에 문외한인 그는 우연히 오백나한 제작을 의뢰받았다. "손끝 행위 하나만으로 성자를 만들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교에 문외한인 내가 어찌 성물을 만들냐?"며 거절도 했지만 우연히 한 사찰의 의뢰로 수도하는 마음으로 오백나한을 조성



천영배 작가의 테라코타인 오백나한 토우

하게 됐지만 사찰의 사정으로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오백나한 제작에 폭 빠져버리고 말았고 4년여에 걸

쳐 180여 개의 작품을 조성하게 되었다. 머리가 희끗한 천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의 구도적 혼이 알려지면서 전시를 열게 됐다. 4년 여의 숏한 작업의 성공과 실패 속에 180여개가 조성됐지만, 자비로 진행하다 보니 현재 흠을 구입하고 가마를 돌릴 경비가 바닥이 났다. 재일 마련을 위해 아파트 경비 면접을 보고 왔다는 천 작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

천 작가는 "오백나한이 한 자리에 모셔진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면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라며 환한 웃음으로 대신했다.(051)853-8001

정혜숙 기자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9.5 ~ 10.31 까지)



관세음보살도 (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산사에 피는 아생화



범음이 깃든 산사



산사와 주련



민족의 산하



연꽃향기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 범음이 깃든 산사
- 지혜동자
- 구도자의 길
- 관음응신도
- 연꽃향기
- 천진동자
- 산사와 주련
- 산사에 피는 아생화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산사의 미(발원)
- 민족의 산하
-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 인생의 도
- 생활한방차
- 운봉스님의 달마도
- 불보살님의 미소
- 풍경소리
- 한국의 보탑
- 심우도
- 반야심경

※ 위의 벽걸이카렌다 외 미니수첩, 미니스프링, 미니차갈이, 탁상, 마닐라카렌다, 불교용품 및 책지도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문의. 031) 732-9905 Fax. 031) 732-8972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D2M NAVER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